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추석 합본호



'트위터 스타' 박용만 두산 회장 현장 인터뷰
황금 연휴에 불만한 영화·공연·도서 15선
순이익 크게 늘어난 회계법인에 무슨 일이

전국민의 동반자 300조 국민연금의 도전

'제빵왕 김탁구' 부럽지 않은 한국의 제빵 달인들
추석연휴 이후 주식시장 투자전략 & 유망 종목
세계적 햄버거 버거킹의 몰락에서 배우는 교훈



1억 소비 시장을 잡아라

인구 증가율 ‘쑥쑥’...소비재 산업 ‘유망’

▶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대상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 2009년 4월 1일 현재 8584만699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2%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내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동 연령층인 15~64세 비율이 전체 인구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 연령층이 많다는 것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인구구조는 향후 30~50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0~45세의 비중이 30%가 넘는 것이 장점이다. 이 같은 인구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고도 경제성장기의 일본과 비슷하다. 실제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7.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인구, 높은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에 유리한 인구구조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더욱이 제조업의 생산 기지 확보를 위한 진출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수 시장

을 직접 겨냥한 소비재 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0년 평균 경제성장률 7.3%

필자가 있는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에도

최근 식품·유통·문화 및 교육 등 베트남 소비재를 겨냥한 산업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 산업은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은 식품 판매를 위한 소매 점포 진출, 식품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법인 또는 100%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형태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유통업은 재래시장이 베트남 소매업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남북이 길게 늘어져 있는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향후 전망이 밝은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형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법인 신규 설립, 현지 유통 업체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 100% 외국인 투자 형태의 유통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크고 작은 업체들이 기존 영업 목적에 유통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인구



베트남 호찌민 중심기에 들어설 파이낸셜센터 건설 현장. 68층 높이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베트남 국화인 연꽃을 형상화한 외관을 갖춰 호찌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베트남 경제성장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중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이라는 점에서 영화·미디어·홈쇼핑 등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부문의 진출이 활발하다. 문화 분야는 베트남 젊은층의 강한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향후 급성장할 산업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베트남에는 젊은층의 강한 소비성향을 빚댄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200~3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700~800달러가 넘는 휴대전화를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교체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문화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다는 데서도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한 한국계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업체의 진출도 활발하다. 9월 초 영업을 시작한 한국계 대형 어학원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 교육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성장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진출도 활발한 편인데, 그중 금융업이 가장 눈에 띈다. 베트남 시장이나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 진출이 주목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 금융회사의 319개 해외 점포 가운데 베트남(38개)은 중국(57개), 미국(49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금융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도시 주택 공급이 도시인구 및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외국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투자 환경이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의 일관성 결여, 처리 기간의 불확정성, 관련

국내 금융회사 해외 점포 수

순위	1999년 말	2010년 6월
1위	미국(49개)	중국(57개)
2위	홍콩(42개)	미국(49개)
3위	영국(35개)	베트남(38개)
4위	일본(31개)	홍콩(37개)
5위	중국(24개)	일본(25개)
6위	싱가포르(13개)	영국(22개)
7위	인도네시아(13개)	싱가포르(14개)
8위	베트남(9개)	인도네시아(9개)
총	31개국(260개)	34개국(319개)

자료: 금융감독원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다 연 7%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규정의 미비 및 사법제도의 공정성 미확립 등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낙후된 기술력, 불투명한 기업 경영 및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 등 투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2010년도 비즈니스 수월성(Ease of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183개 조사 대상국 중 9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1위)·태국(12위)·말레이시아(23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인도네시아(122위)·필리핀(144위)·라오스(167위)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이 눈여겨볼 시장 중 하나

이와 관련, 주요 국가들의 베트남 주재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요구 사항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했거나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요구 사

항에는 행정 업무 처리의 통일화 및 일관화, 추상적인 법률 기준의 명확화 및 이행의 확실성 제고, 전력 공급 및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담겨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향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0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향후 5~10년 내 투자 대상국 적합성 조사에서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비록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에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경기변동의 폭이 크고 경기순환의 사이클이 짧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 사회 변화의 속도가 한국이나 선진국의 과거 변화에 비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20~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격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했듯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국보다 경제 발전이 더딘 국가들에 눈높이를 맞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 많은 인구 및 높은 인구 성장률을 고루 갖춘 베트남은 세계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변회경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호찌민시 사무소장(현)